

P12. 실버농업인의 농촌정착과정 및 적응요인

Establishment process of rural area and adaptation factor of elderly farmers

박공주 · 강경하 · 윤순덕 · 강혜원 · 윤성인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Gong-Ju Park, kyeong-Ha kang, Soon-Duck Yoon, seong-In Yoon, Hye-won kang
Nation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농촌의 인구구조에 조용한 변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와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한적한 농촌 마을을 찾아 이주하는 중장년세대에게 농촌은 평생직장을 약속하는 새로운 일터이며, 인생을 설계하는 희망의 장이 된다(김성수 · 정지웅 · 임형백 · 고운미 · 김정태 · 이성, 2004; 이동하, 1998). 중장년세대의 귀농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기존의 농업인들과 경쟁관계가 될 귀농인구를 환영하고 그들의 귀농과정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귀농현상이 지니는 사회적, 정책적 함의는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김형용, 1998; 서규선 · 변재면, 2000; 이동하, 1998; 정한모, 2002). 귀농현상을 단순한 전직현상으로 이해할 경우 우리는 그것이 지닌 사회적 함의를 올바르게 평가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도시근로 은퇴자들의 농촌이주 현상은 사회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농촌지역의 노동인력의 유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김성수 외, 2004; 김형용, 1998; 정철영, 1998). 다음으로, 새로운 인구의 유입은 앞으로의 농촌문화 전승과 관련이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영농활동을 통한 소득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경제생활을 가능케 하는데, 이는 도시은퇴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궁극적으로 도시은퇴자들의 성공적인 농촌정착은,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이며, 거시적으로는 침체된 농촌사회의 부흥과 함께 사회적 비용의 감소라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높아지는 요즘, 은퇴후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도 고조되어 있다. 그러나 도시은퇴자들의 실제 농촌 이주과정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으며, 그러다보니 체계적인 준비없이 농촌에서의 낭만적인 삶을 기대하고 갔던 무분별한 귀농자들 또한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농촌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귀농현상의 실체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들의 삶과 둘러싼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을 포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는 첫째, 은퇴한 도시직장인들이 농촌으로 이주하기까지의 과정을 탐색하고, 둘째, 현재 농촌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잘 적응하며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실버농업인의 농촌마을 적응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귀농한 도시은퇴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에서의 『실버농업인』은 도시장년층이 농촌으로 이주하여 일을 즐기며 건

강을 지키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개념정의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농촌으로 새로이 이주한 50세 이상인 귀농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04년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전국의 71개 시·군에 거주하는 4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은 우선, 연구자가 문헌 및 인터뷰 자료를 통해 일차적으로 준비한 질문지를 2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행한 뒤, 이를 토대로 설문문항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사전에 훈련받은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소속 모니터 요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수거된 질문지 460부 가운데, 연구대상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실기재된 42부를 제외하고, 총 422부가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관련 변수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함께, 특정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과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응답자들의 적응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모든 통계적 처리는 SPSS WIN/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농촌이주 선택동기는 “자연과 함께 하는 건강한 삶” 50.9%, “텃밭 등을 가꾸는 여생” 40.9%이었으며, 이주지역 선택사유는 “본인의 연고지(고향, 부모님·친척 등이 있는 곳)” 49.4%, “자연경관이 좋은 곳(경치, 공기 등)” 33.5%, “본인 소유의 토지나 집이 있는 곳” 34.0%였다. 농촌이주 준비기간은 “있었음”이 54.3%, “없었음” 45.7%로 준비기간은 “1-3년” 44.3%, “5년이상”도 28.1%의 응답율을 보였다. 실버농업인의 거주형태는 완전농촌이주 90.6%, 주 3-4일 농촌거주 5.0%, 출퇴근 4.0%, 주말 농촌거주 0.4%이었고, 주택유형은 “농촌마을 내 단독주택 60.5%, 한적한 곳에 위치한 단독주택 27.3%, 기타 공동주택 12.2%로 단독주택 선호도가 약 88%로 높았다.

실버농업인의 농촌생활만족도는 만족이 5점만점에 3.6점으로 비교적 만족도가 높았고, 실버농업인의 소득원은 농업, 연금/퇴직금, 이전소득 등이며 현재의 경제생활수준이 과거보다는 낮으나 미래에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농사 작목과 규모는 매우 다양하고, “손쉽게 기를 수 있는 작목”(56.3%)이면서 “소득이 높은 작목”(51.8%)을 기준으로 작목을 선택하며, 농업기술정보원은 주변의 농업인(71.0%)과 농업기술센터(61.1%), 대중매체(38.6%), 자재공급상(30.8%) 등이었다.

또 실버농업인의 농촌이주 후 주요 사회적 지원망(Social support network)은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이웃과 친구이며, 원주민과 관계개선을 위하여 경조사 및 각종 행사 참여 등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비농업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은 연령, 건강, 생활비, 사회적 지원 만족도, 마을주민과의 상호작용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 도시의 과밀화와 남아도는 건강한 장노년층의 인력을 농촌으로 이주시켜, 잘 적응하도록 함과 동시에 고령친화적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업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공동화 되어가는 농촌사회를 활력화 시키는데도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